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롭게 출발하는 다락방 모임

금주 모임은 다락방장 가정서... 수요일 · II부 예배 후엔 다락방장 교육

여름 동안 잠시 중단했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와 휴가 등으로 방학을 했던 다락방 모임을 재개하면서 각 다락방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은 각 다락방장 가정에서 모이기로 했다.

다락방장을 위한 교육도 종전과 같이 수요일 · II부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는 다락방 모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다락방장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지침들이 제시된다. 또한 이 자리에선 같은 교구에 속한 여러 다락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따라서 다락방장은 다락방 식구들의 영적 성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구위원회에서는 다락방장들에게 그 주에 모인 인원수, 다음 모임 장소 및 다락방 식구들의 근황을 적은 ‘다락방 모임 보고서’를 매주 작성하여 교구위원회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현재 12개 교구에 모두 131개의 다락방이 있다.

9월 교회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4일	음악학교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6일	피택안수집사 · 권사 교육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8일	제 12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8일	성경대학(마가복음반)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8일	성경대학(베드로서반)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9일	성경대학(아가반) 개강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9일	성경대학(다니엘반)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1일	성경대학(욥기반) 개강 (매주 목요일 오전 6시)
28일	교사대학강좌
28일	9월 새가족환영회

'97 하반기 장학생 선발

교회내 40명, 농어촌목회자 자녀 31명... 찬양예배 시 수여식

장학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 '97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다.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위원회에서는 교구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학교 지도 목사 및 부장의 추천을 통해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특히 이번 선발 대상이 된 학생 중 상반기 수혜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100교회운동을 시작한 1995년부터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까지 확대, 올해는 교회 내 장학생 40명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 31명 등 모두 7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수여식은 오늘 찬양예배에 갖는다. 장학금은 수여식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선발된 교내 장학생은 찬양예배 시 있을 수여식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내 장학생 *

대학생

김현준 천정운 박우영 이승찬 이원준
김주연 김운수 소은희 이명진 김지윤
양경실 소성연 김 진 박지연 유현주
(15명)

고등학생

김종화 백 훈 주정주 강경득 홍석현
이승준 박준희 김성주 정성훈 최정신
서현아 유명진 곽정임 박혜리 김양언
(15명)

중학생

신혁수 채창훈 전영훈 김은경 고은정
김윤정 김다희 김은정 김성신 정은지
(10명)

* 농어촌 목회자 자녀 *

대학생

고명균 권신일 김 면 김은성 백종석
서영제 오도원 이종순 전준봉 김유진
김은숙 김지영 심에스터 안애림 엄지영
이나비 정소영 장수아 (18명)

고등학생

남기명 유안아 이안나 최다윗 최 현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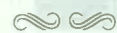
중학생

박현우 이재천 장신형 김한나 박근애
류성순 오신영 이가은
(8명)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8월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8월의 새가족 *

하경수 김정순 김남희 김진솔 민마리아
김화숙 한옥자 김복자 이동석 김인희
구본석 박정민 정혜영 김대영 최미연
고영래 이강남 이길재 김형원 이병희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7장 1절 ~ 8장 2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뿔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뿔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뿔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뿔혔더라...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7:1 - 8:29).



이종운 목사

진중에 있는 죄

승자와 패자는 동시에 환희와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면 으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벌의 공헌을 세운 대영웅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여리고에서의 승전은 청사에 빛나는 대승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7장 초두에서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패전의 이야기입니다.

1. 패전의 이유

대승한 직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성에 모든 백성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의 승리가 자신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둘째,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하들의 충고만 듣고 그대로 따른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진중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7:10 - 12).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주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2. 죄의 성장과 발현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군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전용사인 그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금, 은, 동, 철은 정복의 첫 열매로서 여호와와 곳간으로 거두어 드리고 그밖의 모든 것은 불사르고 백성은 죽이라고 했습니다(수6:24). 아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을 들었으나 전리품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 밑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잡을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경우 그 꿈이 무산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전리품을 앞에 두고 아간은 이런 기회마저 박탈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도적질이라도 하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불만, 불평은 사단의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아간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패배한 군대의 소유를 빼앗아갑니다. 아간은 아마도 그런 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아간은 이긴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정복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사르고 은, 금, 동, 철 기구는 여호와와 집 곳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보셨습니다(수 7:11). 아간이 훔친 것은 두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은과 금 즉 하나님 집에 바칠 물건이었고, 둘째는 사치의 상징이 될만한 바벨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결국 “탐내지 말라”하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간은 결국 도적질을 했습니다. 불만과 탐욕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도적질은 거짓을 무기로 한 보이는 죄입니다. 속에 숨은 것을 회개치 않으면 언젠가 그것은 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

비밀히 지은 모든 죄는 마지막 심판날에 크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곧 밝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토설케 하고 도적질한 것을 모두 회수한 후 아간의 온 가족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사른 뒤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이 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의 계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언약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 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교회에 성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교회를 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말, 과장하여 사실인 양 유포하는 말 등으로 교회에 혼란을 초래할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골은 ‘고통’ 또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좌절과 타락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심판 즉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아골의 고통을 친히 그 몸에 지셨고 우리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계신 할머니께

임연주(초등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 그 모습을 뵈 수 없게 된 우리 할머니 고 장영순 집사님. 그분은 언제나 희생적이셨으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 가족 모두의 일에 관심을 가지셨었다.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의 눈으로 한사람씩 둘러 보시며 인사를 하신 후 "천국에 가셔도 열

심히 기도할게"라는 말을 남기시고 깊은 잠에 드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다시 뵈진 못하지만 할머니의 자상하신 모습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영원히 남겨져 있을 것이다. 또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랑하는 할머니를 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한다.

72년간의 고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보릿고개시절의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다 이기고 꿋꿋이 살아오신 할머니.

"할머니! 저 연주도 할머니의 근면하시고 인내하시던 정신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게요. 우리 가족 모두 또 모든 친척들도요. 할머니! 우리 꼭 지켜봐 주세요."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기쁨

김광신(장로, 장년부 부장)

하나님께서서는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조바심과 초조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의 차이임을 알면서도 언제나 우리 입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구입했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정부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허가과정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 인내를 요구할 것이고 지리한 장마와 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가를 득한 것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된 것이었습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새 예배당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시려고 오랜동안 갖가지로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압박감에서 해방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던 서러움에서 놓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서럽고 지칠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줄지 않으셨고 주무시지 않았 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앞서 가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방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8·15의 해방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이후가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기도와 헌신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온 성도가 모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는 일, 밭에 나가 농사 짓는 일, 장터에 나가 장사하는 일,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지내는 일이 우선이 아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모이고 기도하고 바치고 매달려야 하겠 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현대판 사도행전

김선미(권사)

또다시 목회자신학세미나의 계절이 왔다. 우리 권사들에겐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김밥을 싸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귀하고 즐거운 일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이라 했는데 열 두 번의 목회자세미나가 열리기까지 지난 일들을 돌아 보면 감사할 뿐이다. 6년 전, 우리 교회가 설립 될 때의 눈물을 기억한다. 우리 목사님은 현대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믿음 아래서 묵묵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저 앞만 보고 달려오게 하셨다. 때로 힘들고 지치는 때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시곤 했다. 이제는 더욱 겸손하고 자족하며 사도 바울 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참아내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갖고 더욱 충성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다.

처음 사랑과 그 열심을 다시 생각하며 이제 오는 결실의 계절을 감사와 새로운 다짐으로 맞이한다. 우리에게 좋은 목자를 주시고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변화되게 하소서

최지원(대학부)

내 마음 속에도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해야 할 사랑과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하셨으니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 * *

사람의 생각이나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날로 구원의 역사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정죄가 아닌 사랑을,

비판이 아닌 이해를,

분쟁과 시기 없는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소서.

바리새인의 열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 * *

우리의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대학부가,

대학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하소서.

순례길에 만난 사람

음악학교의 산파역 이연숙 집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서울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찬양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강하는 음악학교의 간사인 이연숙 집사(가브리엘찬양대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고픈 순수한 열정에서 음악학교를 시작했지만 혹 인간적인 면에서 거부감을 주면 어쩌나,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없을까 계속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오면서 그는 더욱 더 많은 기도와 더욱더 철저한 준비로 충실한 과정을 담아야 한다는 일념

에 늦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이 집사가 음악학교를 구상하게 된 동기는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이 배운 음악에 관한 지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많은 성도가 잘 다듬어진 소리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다 그 설레는 꿈을 교회에 내놓게 되었던 것. 이에 교회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이를 승인하면서 음악학교가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번에 개강하는 음악학교에서 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악.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교과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이 집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과 과정엔 발성과 호흡, 가사표현법, 리듬감 훈련, 조표식별, 악보읽는 법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딱딱하지 않

은 분위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배울 수 있게 다양하게 선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선은 찬송가를 바르게 부르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음악학교는 4학기제인데 매학기마다 우수한 수강생 4~5명을 선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3, 4학기는 주로 무대에 서는 훈련을 하며 4학기 수료자는 정식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집사는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 1학년때 찬양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남편(허희철집사,가브리엘찬양대 지휘)을 만난 것도 합창단(KBS합창단)이 매개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 순례자 컬럼 ✧

열매

맺어야 할 열매를 때가 되어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화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열매없는 나무는 주인의 기력과 땅을 허비케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인을 격노케 하여 찍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화과가 포도나무 못 된 것을 한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원하고 선택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삼년이나 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자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으나 과원지기는 일년만 더 참아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다는 비유는 예수께서 우리 생명이 마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처럼 책임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좋은 열매 맺어 주인을 기쁘시게 해 드리자.

서울성경대학 개강감사예배

서울성경대학의 본격적인 개강에 앞서 오늘 찬양예배 시에 개강감사예배를 드린다.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개설한 성경대학의 강

서울성경대학 제 2학기 교과과정표(9~12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마가복음	월요일 오전 10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베드로서	월요일 오후 8시	김명현 목사	9월 8일
아가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9월 9일
다니엘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9월 9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1일
음악학교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연숙 집사	9월 4일

좌 및 시간, 강좌, 개강일은 <표>와 같다.

오늘 개강예배 후 각 강좌는 개강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등록은 개강일까지 접수하며 문의는 사무국.

등정

- ◆ 이종윤 목사는 9월 4일(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1세기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위원회에 참가.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신순우 집사 가정에서 제공.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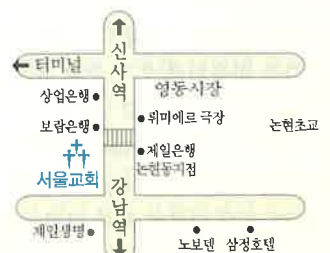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천국시민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2.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대학 · 음악학교를 위해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